

고객과 소비자의 만족 실현

- 최상의 서비스 제공



- KETI는 정확한 결과를 위한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고객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Korea Electric Testing Institute)
이화석 원장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망의 21C를 맞이하여 우리연구원은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

대를 위하여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로부터 CB시험소 및 NCB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전문시험인증과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뒤에는 고객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이라는 튼튼한 밑거름이 없었던들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었기에 다시한번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판매하는데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적기에 생산을 하여 판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품의 품질보증이라든가 품질시스템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이 된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순이익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특히 모델이 빨리 바뀌는 전기전자제품에 있어 시장의 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의 선점이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은 국가별로 안전인증을 요구한다. 유럽의 CE 마킹, 우리나라의 안전인증 EKC 마크, 중국의 CCC 등 안전 및 전자파검사는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성능과 신기술이 결합된 제품을 만들어도 안전규격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막대한 장비와 인건비를 투입하면서 규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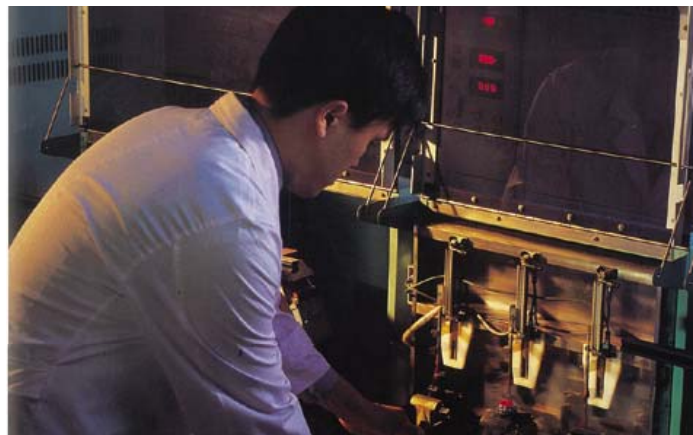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격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전문시험인증기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처럼 자국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전문시험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ETL 및 UL, 캐나다의 CSA, 영국의 BSI, 독일의 VDE, TUV, 스웨덴의 SEMKO, 노르웨이의 NEMKO가 대표적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는가? 물론 존재한다.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바로 그러한 기관인 것이다.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Electric Testing Institute, 원장 이화석, 이하 'KETI')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경기도 군포시의 금정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 넓지 않은 길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KETI의 정문 앞에 와 있었다. 붉은색 벽돌 건물에 4층위에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였다.

본관과 별관으로 되어있는 KETI는, 본관에는 주로 시험실이 별관에는 회의실 및 행정부서가 위치해 있다. 1층 시험실에는 환경시험설비 및 민원실이 2,3층에는 전기제품 및 의료기기 시험인증시설이, 4층에는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담당부서 및 고가의 장비를 자랑하는 전자파 시험실이 위치해 있었다. 전체적으로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답게 각종 시험설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많은 시험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KETI는 공산품 품질향상과 수출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70년 3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수출만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 정권시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고 어렵게 수출을 해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클레임을 당하기 일수였다. 이에 수출을 하기 전에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KETI가 전기전자분야의 수출품을 담당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기관 창설 초기 KETI의 주 업무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 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관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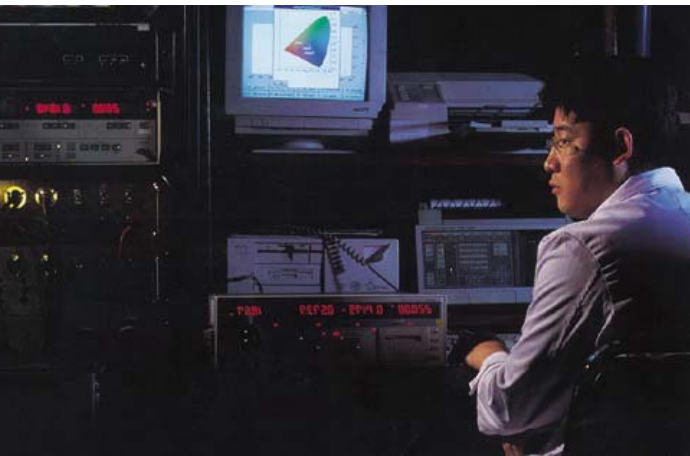
KOLAS(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전기전자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1999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수년에 걸쳐 준비했던 결실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로부터 광분야의 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공인시험기관에

80년대에 들어, 1982년 전기용품형식승인기관 지정, 1986년 KS 품질관리능력평가기관 지정, 1987년 일본 JIS 공장심사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점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KETI는 1992년 정통부 전자과장해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다시 러시아 국가규격(GOST-R)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994년에는

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KETI는 이듬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2002년에는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전기기기 분야 역시 국제시험기관(CBTL)으로 지정을 받았다. 2003년 국제전기기기위원회(IECEE)로부터 공인인증기관(NCB)로 지정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에 공인된 시험인증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에 전세계 56개 국제시험인증기관(NCB)중 24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인증마크(TCO)에 대한 시험기반 역시 구축하였다.

이후, KETI는 계속 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도에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전기기기위원회(스위스 본부 소재)로부터의 심사에 합격하여 전자파의 모든 분야에 대한 CB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로서, 전세계 43개국에서 통용되는 안전 및 전자파 CB성적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으로 도약하였다.



2006년에 KETI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유해물질환경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센터를 구축하여 환경인증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인증은 인증시까지의 소요기간이 너무 길고 고객이 부담할 엄청난 비용으로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우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국내 부품산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지원을 위해 캐패시터, 전선등을 포함한 부품분야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및 인증 기관 (NCB)으로의 지정 및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그래서, 금년말부터는 제품인증 위주에서 부품 및 환경 인증을 포함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기존의 절반이하의 가격과 기간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 규격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자는 귀뜸을 해준다.

그럼 과연, 중소기업 및 벤처업체를 위하여 KETI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위에 언급하였듯이 국내외 안전규격을 보다 저렴하고 빠른 기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대기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KETI의 담당자들은 KETI의 역할이 단순한 시험인증업무 이상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기 힘든 규격연구소의 역할을 KETI가 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에도 KETI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안전규격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체의 설계자 및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보사무기기에 대한 규격세미나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업체의 담당자들을 많이 초청하여 관련 규격의 동향 및 좀더 실질적인 '안전



규격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진행될 다른 국가와의 MRA 및 FTA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적합성 평가 및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KETI의 역할 역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KETI를 방문한 느낌은 마치 '숙련된 장인(匠人)'을 보는 것 같았다. 어느 개인이나 기관도 한 분야에 30년이 넘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설비자금을 지원 받는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정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TI는 전기전자의 시험인증분야에서 30년이 넘게 업무를 해오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며, 보다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